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40 / 2007.12.5

□ 말레이시아,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세계 1위

- 유엔개발계획(UNDP)은 11월 29일 말레이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함.
- UNDP는 말레이시아가 지난 40년간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국가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증가율은 세계 1위이며, 총 배출량은 세계 26위라고 밝힘.
- UNDP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'90년 기준으로 '0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21% 증가하여 증가율에서 세계 최다 온실가스 배출 30개국 중 1위를 기록했음.
- 인구 2,700만 명인 말레이시아는 인구 면에서 전 세계의 0.4%를 차지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0.6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말레이시아는 교토의정서 비준국가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(Reuters, 2007.11.29)

NEWS

- 말레이시아,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세계 1위
- 우즈베키스탄, 가스가격 인상 추진
- 태국, 이집트 가스회사 지분 매입
- UAE, 에너지사업 확대
- 파나마, '08-'09년 전력요금 인상 계획
- EU, 자동차 CO2 배출규제 방안 검토
- EU,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
- 스페인,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차질
- 프랑스, 중국으로부터 원자로 2기 수주
-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 12월에 운영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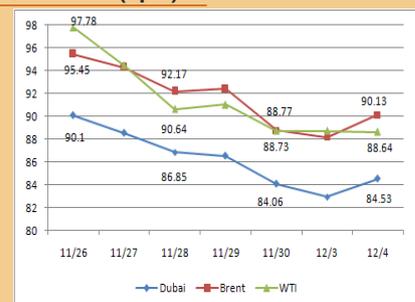
ANALYSIS

- EU의 기후변화 대응책 평가
- OPEC의 추가 원유증산 가능성
- 세계 천연가스 수요 전망

REPORT

- 유엔개발계획의 Human Development Report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 & MIDDLE EAST

□ 우즈베키스탄, 가스가격 인상 추진

- 우즈베키스탄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자국산 가스 가격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.
 - 우즈베키스탄 국영 에너지기업인 Uzbekneftegaz는 세계적으로 가스가격이 오르고 있고 달러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가스 가격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힘.
 - 우즈베키스탄의 이런 입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 가스프롬과 최근 자국산 가스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나온 것임.
 -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천연가스 1,000 m³당 \$100로 거래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엔 \$130, 하반기에는 \$150로 인상하기로 가스프롬과 합의한 바 있음.
 - 이에 따라 현재 1천 m³당 \$100을 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도 12월중 가스프롬과 협상을 벌여 내년에 자국산 가스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.
- 가스프롬은 중앙아시아 가스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스를 사들여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국가들에 평균 두 배 이상인 \$260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.
-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도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가스프롬이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가스가격이 내년부터 상승할 전망이다.

(Reuters, 2007.11.29)

□ 태국, 이집트 가스회사 지분 매입

- 태국 최대 에너지회사인 PTT는 \$4억 8,690만에 이집트 East Mediterranean Gas Company(EMG)의 지분 25%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힘.



- PTT는 EMG사의 지분을 주당 \$13.25로 매입하기로 함.
 - ※ EMG는 이집트에서 대 이스라엘 가스 수출권을 가진 회사로 현재 양국사이 \$4억 7,900만 상당의 가스 파이프라인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.
- PTT의 이러한 지분매입은 향후 태국의 국내 가스수요 충족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에 따른 것임.
 - 동 계약은 태국 회사가 이집트를 발판으로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진출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(Al-Jazeera, 2007.11.29)

□ UAE, 에너지사업 확대

- UAE는 주요 석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\$100억~200억의 투자 증대를 계획하고 있음.
- UAE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8.1%에 가까운 약 980억 배럴에 달하며 가스는 약 6조 m³임.
 - UAE는 현재 석유 270만 b/d와 천연가스 650억 m³/yr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생산은 350만 b/d로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60만 b/d에 달하는 정제능력은 110만 b/d로 늘릴 계획임.
- 아부다비 IPIC 국제석유투자회사는 석유, 가스부문의 확대를 계획하며 '07년 일본 Cosmo Oil의 지분 20.85%를 매입하였음.
 - 또한 파키스탄정부와 20만 b/d의 석유정제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.

(Moheet, 2007.11.26)

□ 파나마, '08~'09년 전력요금 인상 계획

- 파나마 정부는 '08~'09년 전력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.
 - 현재 파나마는 경제성장률이 9%에 달하며 평균 4.5%였던 전력수요 증가율이 약 6~8%로 상향 조정됨.
 - 정부는 동 요금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월 500 kW 미만 이용자(전 국



- 민의 92%)에게 주어진 보조금지급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임.
- 이러한 보조정책으로 인한 국가지출은 '08년 약 \$600만에 이를 전망이다.
 - 현 파나마 전력설비 용량은 1,400 MW에 달하며, 최대수요는 '08년 1,102 MW, '09년은 1,158 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.
 - 파나마 발전량의 60%는 화력발전으로 나머지 40%는 수력발전으로 이루어져 유가와 강우량에 매우 민감함.

(EFE, 2007.11.27)

EUROPE & AFRICA

□ EU, 자동차 CO₂ 배출규제 방안 검토

- EU는 11월 25일 승용차의 CO₂ 배출량 규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힘.
- 자동차부문의 페널티 도입은 규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며, 구체적인 규제안의 내용은 연내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.
- EU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규제안은 '1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신차를 대상으로 CO₂ 배출량을 주행거리 1km당 120g로 규정하고 있음.

(日本經濟新聞, 2007.11.27)

□ EU,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

- EU는 풍력과 태양광 등 EU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GDP 기준으로 의무화하는 방침을 결정함.
-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각 회원국에 제안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중심으로 EU 전체로 확대할 것임.
- 동 방침은 에너지소비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시스템임.



-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목표 달성을 촉진하며,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용확대를 촉구할 예정임.

(日本經濟新聞, 2007.11.27)

□ 스페인,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차질

- 스페인은 '10년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에 약 14% 정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.
 - 스페인은 '10년까지 '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15%의 증가 승인을 받았으나, 현 정책으로는 '10년까지 증가율이 42.3%에 이를 것임.
 - 제 3국으로부터의 배출권구매로 11%, 삼림조성 계획으로 2% 추가 감소가 가능하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29.2%에 이를 것임.
-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상 중이며 '08년~'13년 동안 산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 그 기준을 강화할 것임.
 - '05년 스페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이미 전년대비 3.6%, '90년 대비 52.3%였으며,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발전 및 냉난방용 화석연료와 높은 자동차 보급 증가율임.
 - 이로써 EU의 15개 비준국 중 스페인과 덴마크, 이탈리아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(Europa Press, 2007.11.27)

□ 프랑스, 중국으로부터 원자로 2기 수주

- 프랑스 Areva는 중국 광동원자력발전공사(CGNPC)와 80억 유로 규모의 유럽형가압경수로(EPR)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.
 - 동 원자로는 광동성 Taishan 원전에 건설될 예정으로, 착공 시기는 '09년 하반기이며 운영개시일은 '14년으로 전망됨.
 - 중국 CGNPC는 Areva가 보유한 남아공 및 나미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



국의 우라늄 광산 지분 35%를 인수하기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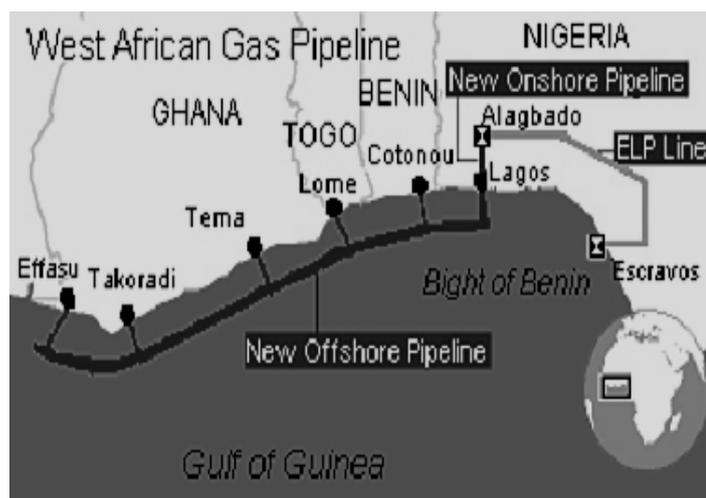
- 프랑스 EDF와 CGNPC는 동 원자로를 운영할 합작회사 Taishan Nuclear Power Company(TNPC)를 설립할 예정으로, EDF는 동 회사의 지분 30%를 출자할 것임.
- Areva와 CGNPC 양측은 50%씩 공동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, 프랑스는 동 회사를 통하여 기술을 전수할 계획임.
- 또한 Areva는 중국원자력공업집단공사(CNNC)와 핵연료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생산을 위한 공동회사도 설립할 예정임.

(Les Echos, 2007.11.26)

□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 12월에 운영 개시

-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(West Africa Gas Pipeline) 운영이 12월 23일 개시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산 천연가스가 서아프리카 연안 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임.
- WAGP는 나이지리아-베닌-토고-가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나이지리아-베닌을 잇는 620km 구간 건설에 \$6억이 소요되었음.

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



- World Bank는 이번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해 토고와 가나는 향후 20년간



\$5억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, 파이프라인 통과 지역에서 1만~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추후 인근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감소되면 WAGP는 세네갈까지 확장될 계획임.

(UPI, 2007.11.26)



1. EU의 기후변화 대응책 평가

□ 개요

- 유럽 집행위원회는 EU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으나,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제 3세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 및 삼림보호법의 실행으로 EU 15개국의 '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'90년 대비 7.4%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함.
 - EU 15개국은 '10년에 기준년도 대비 4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, 이 중 10개국의 배출권 거래로 2.5%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여 총 6.5%의 감축을 예상함.
 -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조림(Afforestation) 및 재조림(Reforestation) 프로젝트는 추가로 0.9%의 감축을 이루어 총 7.4%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는데, 이는 교토의정서 목표보다 0.6% 높은 수치임.
- 동 수치는 '12년 예상 감축비율 8%에 근접하는 것으로써,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방안들이 추가로 채택된다면 '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.4%까지 감축 가능함.
 - EU의 교토의정서 비준 15개 회원국은 1차 공약기간에 '90년 대비 8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하였지만, EU의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정해진 감축 목표량은 없음.
 - EU 12개국은 동 기간 내에 기준년도 대비 6~8% 감축하기로 하였으나, 시프러스 및 몰타는 아직 목표량을 정하지 않음.
- 검토 중에 있는 추가 규제방안은 '11년부터 항공부문에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, '11~'20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% 감축하는 것임.



□ 시사점

- EU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수송 등 각 부문의 규제 방안 제정, 항공부문의 배출권거래제 포함 등의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(Europétrole, 2007.11.27), (Les Echos, 2007.11.28)

2. OPEC의 추가 원유증산 가능성

□ 개요

- 12월 5일 UAE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예정인 OPEC 장관회담에서 추가 증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증산결정 여부가 내년 상반기 까지 국제유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 - OPEC은 지난 9월 총회에서 50만 b/d 증산을 합의하였으나 주요 석유소비국들로부터 증산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추가증산 압력을 받아옴.

□ 세부내용

- OPEC 회원국들은 고공행진을 계획하는 유가의 안정을 위하여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장관회담에서 최소 50만 b/d의 추가증산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.
 - 최근 국제유가(WTI)가 배럴당 \$100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OPEC 회원국들도 현 수준의 고유가는 자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함.
 - 사우디를 포함한 일부 걸프국가들이 추가 증산을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회담에서 OPEC이 최소 50만~70만 b/d, 최대 100만 b/d까지의 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함.
 - 사우디는 11월에 9백만 b/d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월 총회에서 합의된 증산수준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

- ※ 그러나 사우디는 지난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초과 증산을 부인하고 있음.
- 그러나 OPEC은 공식적으로 원유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이 추가증산을 반대하고 있어 증산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음.
 - OPEC은 세계 석유수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 \$100 수준의 유가는 불가능하며 이는 달러약세와 투기자금에 기인한다고 강조해 왔음.
 - 베네수엘라와 카타르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원유증산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는 증산에 대한 입장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- ※ 사우디아라비아는 현 수준의 고유가를 우려하고 있으나 원유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OPEC과 입장을 함께 하고 있음.
 - 사우디 석유장관은 OPEC이 추가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석유수급과 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, 이란은 통계분석을 통해 원유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추가 증산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피력함.

□ 시사점

- 최근 WTI와 BRENT 원유가격이 배럴당 \$80대로 하락하면서 국제유가가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.
- 하지만 이러한 약세에 보다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수급상황인 만큼 OPEC의 추후 증산여부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초 유가 시황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.
- 따라서 OPEC이 연내에 추가증산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고유가가 계속될 수 있으며 유가 \$100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임.

(Financial Times, 2007.11.27)



3. 세계 천연가스 수요 전망

□ 개요

- IEA의 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중국 및 인도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견인하며, 북미 및 유럽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.

□ 세부내용

- 천연가스 수요 전망
 - IEA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'05년에서 '30년까지 연평균 2.1%씩 증가할 전망이다.
 - IEA는 LNG가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, LNG 거래는 '05년 1,890억 m³에서 4배 증가한 '30년 7,580억 m³을 기록할 전망이다.
 - IEA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(LNG 및 PNG)은 '10년 120억 m³으로 증가하며 '15년 280억 m³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인도는 '10년 LNG 수입은 2배로 증가한 120억 m³을 기록할 전망이다.
 - 최근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OECD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은 '05~'30년 연평균 1.4% 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OECD 북미는 같은 기간 1.1%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
 -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는 경제적, 환경적 장점으로 '30년까지 수요증가분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.
 -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연료의 상대가격에 따라 결정되며, IEA에 따르면 최근 높은 가스가격은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.
 -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음.



○ 정책 변화

- 현재 각국의 정부가 고려중인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정책을 반영한 대안시나리오에 따르면 '05년~'30년 수요증가율은 다소 낮은 연평균 1.5%임.
-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'30년까지 6,080억 m³ 적은 수치이며 이는 현재 미국 소비량에 해당함.
- 미국 및 일본에서 전망기간 말에 소비가 감소하며, 중국에서의 소비는 발전부문에서 가스소비 증가에 따라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보다 높게 증가함.

중국 및 인도 천연가스 수입 전망

(단위 : 10억 m³)

구 분		기준 시나리오			대안 시나리오		고성장 시나리오	
		2005	2015	2030	2015	2030	2015	2030
중 국	수입	0	28	128	48	158	47	216
	가스수요 비중	0	21	54	32	59	31	65
	1차에너지비중	0	1	3	1	4	1	4
인 도	수입	6	13	61	12	56	29	112
	가스수요비중	17	22	55	21	53	39	68
	1차에너지비중	1	1	4	1	4	3	6

□ 시사점

- 중국 및 인도의 천연가스 수요증가는 세계 에너지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경제성장과 발전부문에서의 가스화력 발전의 경제성, 기후 변화의 영향 등의 변수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 증가폭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됨.

(Argus Aisa Gas & Power, 2007.11)



1. 유엔개발계획의 Human Development Report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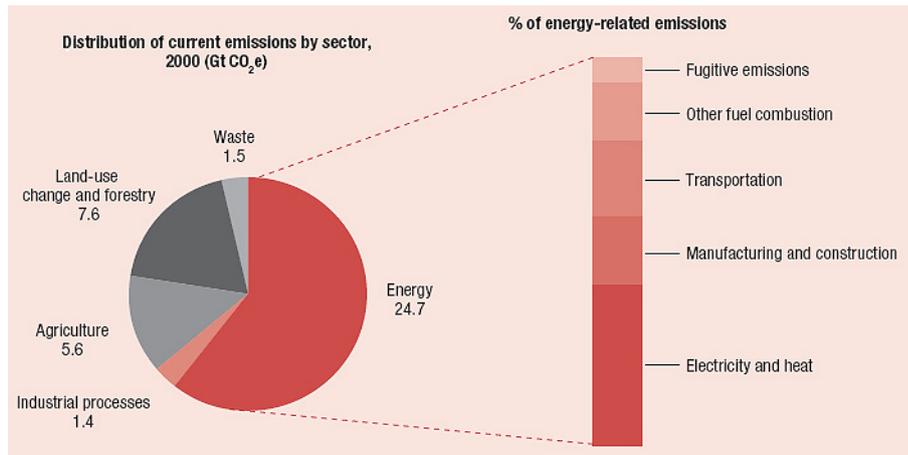
- 지난 27일 발표된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/2008은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볼 때,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음.
 - 온실가스 배출량을 '20년까지 '90년 수준의 30%, '50년까지 50% 감소시켜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기후변화현상과 도전과제, 국가 및 지역별 대응 상황 및 방안,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21세기 최대의 도전과제인 기후변화
 - 산업화 이후 기온은 0.7℃ 상승했으며, 상승 온도가 2℃가 되는 시점부터는 범지구적 피해가 예상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 - 탄소배출량과 관련하여 최근 인도, 중국 등 개도국에서의 탄소배출 증가에 대한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일인당 배출량으로 볼 때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일인당 배출량은 중국의 5배, 인도의 15배임.
 - UNDP는 '5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50%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'20년까지 30%, '50년까지 80%를 감축해야하며, 개도국은 '50년까지 20%를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함.
 - 이 전망에 따르면 '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액은 연간 세계 GDP의 1.6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 - UNDP는 탄소배출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에너지사용 증가를 언급하며 관련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.
 - 각국의 정책을 감안하면 에너지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은 '30년까지 5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

부문별 탄소배출 비중



○ 기후변화 피해의 불균형

-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는 생산성과 인적 역량을 감소시켜 인적·사회적 개발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임.
- 특히 기후변화의 피해는 범지구적으로 불균형하게 발생하는데, '00~'04년간 OECD 국가에서 발생한 인적피해는 1,500명인데 반해 개도국의 인적피해는 2억 6,200만 명에 달함
-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적개발에 미치는 장애요인으로 농업생산성 저하 및 식량부족과 물부족, 해수면상승, 생태계파괴, 보건문제를 들고 있음.
- 이들 5개 요인은 사회, 경제, 환경부문에서 상호작용하여 피해가 배가될 것이며, 인간이 기후변화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기간은 약 10여년 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.

○ 기후변화 피해 완화 전략

- UNDP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전 세계적 위기로 규정하면서, 이와는 대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.
- 탄소집약적 경제로 인해 기후변화가 악화될 것이므로,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 없이는 기후변화 피해를 줄일 수 없음.
-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은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임.



- 동 보고서는 탄소시장 구축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데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하면서, 대표적인 예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제공, 에너지효율 향상, 수송부문에 연료효율 향상을 들고 있음.
 - UNDP가 제시하고 있는 탄소세는 '10년에 \$10~20/tCO₂로, 이후 매년 일정액 증가한 \$60~100/tCO₂를 적정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음.
 - 탄소시장과 함께 탄소포집 기술 등의 저탄소기술개발 및 보급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, 이를 저개발 국가로 이전·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.
- 국가차원의 대응 및 국제 협력
- 지구온난화는 범지구적인 문제로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므로,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탄소배출 급증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저개발국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일조해야 할 것임.
 - 현재 다자 기구를 통해 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와 Least Developed Country Fund가 구성되어 있지만 선진국의 국내 기금과 비교해 볼 때,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으로는 부족한 액수임.
 - 이에 대해 UNDP는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선진국 정부가 '15년까지 최소 \$860억(GDP의 0.2%)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
□ 시사점

-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/2008은 기본적으로 교토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며, 포스트 교토 체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Carbon Budget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는 포스트-교토체제에 대비하여 배출권 거래 제도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방안 및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재원의 마련 등이 요구됨.

(UNDP, 2007.11.28)